

# 애그플레이션 시대 작물보호제 역할 더욱 커질 것

10. 9 -10 용평리조트서, 400여명 참석 성황 이뤄

-홍보부-

**한** 국농약과학회 (회장 최운홍) 와 한국작물보호협회 (회장 염병만)가 공동 주최한 「2008한국농약 과학회 추계 학술발표 회 및 한국작물보호협 회 창립 35주년 기념



심포지엄이 관계 및 학계, 언론, 업계 관계자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 개최됐다.

지난 10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 동안 강원도 용평리조트내 그린피아콘도 그랜드볼룸에서 '애그 플레이션 시대 식량주권과 작물보호제 산업'이란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서는 최근 의미가 모호한 채 만능인 양 확산되어 가는 유기농업의 빛과 그림자를 조명하고, 애그플레이션 시대 세계열강들의 곡물 확보 전쟁 등으로 식량무기화는 가능성이 아니라 목전에 와 있는 현실임을 상기시켜 작물보호제의 중요성과 그 위상을 재정립하며 나아갈 방향을 확립하는 좋은 계기가 된 것으로 분석된다.

농약과학회 최운홍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몰아닥치고 있는 곡물가격 상승과 식량위기는 식량확보의 중요성은 물론 기존 식량의 소중함

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고 우리농업을 새롭게 평가·조명할 수 있는 좋은 기회" 라면서 "급변하는 세계 농업흐름 속에서 현실을 적시하고 농업생산의 중요한 축

을 담당하고 있는 작물보호제의 중요성과 위상을 재정립 하며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행사가 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한국작물보호협회 염병만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지구촌은 지금 어느 누구도 소중한 먹을거리로부터 안심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식량자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한 작금의 일시적 풍요는 사상누각에 불과할 뿐"이라고 전제하고 "이제는 먹을거리의 진정한 위해요소가 무엇인지 가려낼 줄 알아야 하며 과학을 보는 소비자의 인식도 공평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일본 동경농업대학 Naoki Motoyama 교수의 '일본 유기농업의 허상과 실상'을 비롯, 모두 5편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주요 내용을 요약, 정리해 본다<편집자註>

Part 1

일본 유기농업의 허상과 실상

# 작물보호제의 역할 · 안전성 ‘정당한 평가’ 이뤄져야

■ Naoki Motoyama / 일본 동경농업대학 교수

작물보호제 안전성자료 가장 풍부한 화학물질, 막연한 비판 국민이익 손실  
대체자재 효과 · 안전성 미비, 독립 어려운 유기 · 무농약재배 장려 이해 어려워



**매**스컴에서는 실패를 검증하지 않고 「무농약 이니까 안전, 안심」이라는 수식어를 계속해서 언급함에 따라 「농약은 위험, 나쁘다, 줄여야만 한다」라는

이미지를 소비자의 머릿속에 각인시키고 있다. 최근 발생한 사건 중에 중국에서 수입한 냉동 만두의 혼입농약에 의한 중독 사건은 수입농산물은 위험하다, 작물잔류농약은 위험하다 라는 오해를 초래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최근 초당적 의원 입법에 의해서 유기농업촉진법이 통과, 농약대체자재로서 의존도가 증대되고 있지만, 그와 같은 자재의 대부분은 작물 보호효과도 그 안전성도 확인되어 있지 않다.

### 농약의 역할

같은 면적에서 많은 생산량을 얻기 위해서는 단위면적당 수확량을 배로 늘리는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서는 다수확품종과 그것을 유지하는 화학비료 및 병해충 · 잡초의 피해를 억제하는 농약의 역할이 크다.

식량수입대국인 일본에서는 포식의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착각에 빠지기 쉽다. 그러나 옥수수 같은 작물이 식량수입국에서 바이오에탄올 제조에 전용됨에 따라 곡물의 가격양등을 초래해서, 선진국에서도 세계적인 식량위기를 실감할 수 있게 되었다.

농작물을 생산하는 농경지는 인공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자연생태계의 균형은 존재하지 않는 단순생태계로 되어있다.

또한 그곳에서 생산되는 작물은 야생식물과 다르고, 사람이 먹어도 중독을 일으키지 않는 것처럼 천연독의 농도가 낮은 것을 육종하여 선발한 것이다. 따라서 사람의 손으로 보호하여 주지 않으면 적정 수확을 얻을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농약이라는 것은 그런 이유 때문에 발명된 무기이다. 또 하나 잊혀지지 않는 것은, 농약에는 작물을 유해한 생물로부터 보호할 뿐만 아니라 특히 제초제의 경우에는 인

간을 가혹한 노동으로부터 해방시켜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현재에는 IPM = 반농약·비농약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회에는 아직까지도 농약사용량을 줄이는 것이 IMP의 목적이라고 오해하고 있다. 특히 최근 초당적인 의원 입법으로 통과된 유기농업추진법은, 어느 시대의 미국의 금주법과 같이, 불가능한 것을 억지로 강요당한 농가, 나아가서는 국민을 괴롭히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농약에는 △방법이 간단△효과가 확실하게 안정 △경제적이라는 장점이 있는 반면 부적절하게 사용할 경우 일부 부작용이 있다. 따라서 농약 사용 자체를 부정하는 것보다 단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히 사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다.

### 유기농업 농장과 위장농약 문제

작물은 유해생물에 있어서는 좋은 먹거리가 되기 때문에, 농약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방법으로도 방제를 하지 않으면 적절한 수확을 할 수 없다. 무농약이나 유기농약이라고 칭해지며 고가에 유통되고 있는 농산물과, 농약을 사용하여 재배된 저가에 유통되고 있는 보통 농산물간에 농약의 검출율에서도, 검출된 농도에서도, 유의차가 없다고 하는 놀라운 조사결과가 보고 된 적이 있다.

지금부터 15년 전인 1993년경에, 10종류의 식물 추출액 「몽초(夢草)」라 불리는 방제자재를 필자의 연구실에 가지고 와서 조사한 결과, 싸이퍼메스린이라는 합성피레스로이드 살충제가 혼입되어 있는 것이 밝혀지게 되었다. 그 후 조사를 한 같은 자재에도 방제효과가 있는 것에는 예외 없이 농약(살충제, 살균제, 제초

제)이 혼입되어 있는 등 어이없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다. 그러한 것을 유기만이 안전·안심·건강에 좋다고 믿고 높은 가격을 지불하며 광범위하게 먹고 있다. 소비자가 알면 분노할 일이다. 한편 위장농약을 농약대체자재로서 수입·제조·판매·사용하는 것은 분명 농약관리법 위반이다. 사용기준이 없기 때문에 사용자·소비자·환경에 대해서도 위험하다. 필자는 이와 같은 자재에 의존하지 않으면 성립되기 어려운 유기나, 무농약 재배를 무리하게 장려하는 것이 정말로 일본농업이 지향하는 목표인지 묻고 싶다.

### 맺음말

농약은 안전성에 관해서는 가장 데이터가 풍부한 화학물질이다. 현행의 관리제도에 의해서 잔류농약에 관한 안전성은 확립되어 있다. 새롭게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항상 과학적으로 검증해서 필요가 있으면 개선하는 자세를 잊어 버려서는 안 된다. 하지만 반대를 위한 반대나 안이한 혐의로 농약에 대해서 마녀사냥을 하는 것은 국민의 이익을 손상함은 물론 특히 위장농약이나 위장유기농업에 대해서는 「무농약이니까 안전·안심」이고 「농약을 사용해서 재배한 농산물은 위험」이라는 어리석은 선전과는 정반대이다. 이는 건실한 농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모욕이다.

한국에 있어서 농약에 대한 사회평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모르지만, 시계의 진자처럼 극단에서 극단으로 흔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농약이 담당하고 있는 고유의 역할과 안전성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정당한 평가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Y

Part II

국제 곡물파동과 식량위기시대, 한국농업의 나아갈 방향

# '값싼 식량시대' 종말 '자급률 제고' 등 양면접근 절실

■ 김병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동양분석실장

현재 세계 식량사정은 위기, 향후 10년간 과거 수준으로 회귀 어려울 듯  
곡물의 안정적 확보 · 해외농업개발 · 국제적 공동 노력 기울여야



지난 5월 29일 OECD·FAO는 현재의 세계 식량 사정을 위기(Crisis)라고 진단하고 향후 10년간 과거 수준으로 되돌아가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전 세계적인 곡물파동을 계기로 식량수요는 팽창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어 '값싼 식량시대', '풍요 시대'의 종말이 주장되고 있기도 하다.

### 국제 곡물가격 급등 및 원인

국제 곡물가격의 상승 원인은 근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에서 발생한 재고율의 급격한 하락이며, 그 외에 최근 미국의 달러화 약세와 금리인하에 따른 투자펀드의 유입, 곡물수출국들의 수출규제와 수입국들의 비축용 매입 증가가 가격급등을 부추기고 있다.

국제 곡물 재고율 감소 세계 곡물 수급은 1990년대 이후 생산 증가가 소비 증가를 따라

잡지 못해 재고가 줄어들고, 최근 호주의 6년 가뭄 등 기상이변으로 곡물 생산변동이 커져 수급이 심하게 불안정해졌다. 재고율은 2000곡물년도(10월~익년 9월) 30.4% 이후 2005년부터 20% 이하로 하락하여 2006년 16.2%, 2007년 15.0%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인도 등 신흥시장의 곡물수요 증가 인구거대국인 중국과 인도 등 신흥시장(Emerging Market)의 식용 및 사료용 곡물 수요가 급증하는 추세이며, 향후 상당 기간 소득증가에 따라 곡물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바이오연료용 곡물 수요 증가 국제 유가 급등으로 바이오연료 생산의 경제성이 개선되고 미국, 브라질 등 주요 국가들이 에너지안보 차원에서 바이오연료 생산을 장려, 바이오연료 생산 확대를 위한 곡물 소비가 증가된다.

국제 유가상승에 따른 곡물 생산 및 운송비용 증가 곡물 생산에 필요한 농약, 비료 등의 투입재 및 농기계 등은 석유를 비롯한 화석 연료를 필요로 한다. 최근 유가급등은 해상운임을

높여 곡물가격을 상승시키고 있다.

곡물 수출국의 수출 규제 강화 곡물 수출국들은 자국의 식품 가격 상승 억제 등을 목적으로 수출제한조치를 취하고 있고, 반대로 수입국들은 자국에 필요한 곡물의 확보를 위해 수입을 촉진하고 있다.

국제적 투기 자본의 유입 구조적인 문제 이외에 시카고 선물시장 등으로 몰려든 투기 자본의 영향이 크며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촉발된 경제 불안 등으로 미국 달러화의 약세가 지속되고 금리가 인하됨에 따라 주식, 채권 등 달러화 자산 역시 곡물을 포함한 상품 시장으로 유입되고 있다.

곡물메이저의 독과점력 행사 세계 곡물 교역량의 80% 이상을 좌우하는 곡물메이저들의 직간접적인 공급 및 가격 조정도 가격 급등의 한 요인으로 추정된다.

### 국제 곡물가격 급등의 영향

국제적인 영향 : 축산업 타격과 빈곤층 악화 국제 곡물가격 급등은 곡물 수출국의 일정 규모 이상 곡물농가의 수익 증대를 가져오는 반면, 수입국에서 사료곡물가격 상승에 따른 축산농가 수익 격감, 인플레이 압력, 식량난에 의한 폭동 등의 영향을 미치고 미국, 브라질, 호주, 중앙아시아 등 곡물 수출국들의 곡물생산 농가들이 소득증대 효과를 누리고 있다.

국내 파급영향 국제 곡물 가격 상승의 영향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 부문은 축산농가와 식품산업 분야이다. 사료비 상승에 따른 경영 악화 이외에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로 한우 산지가격이 하락하고 있어 농가의 수익구조는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소비자·생산자

물가 상승에도 직접적으로 반영된다.

쌀 자급의 위력 쌀의 해외의존도가 낮아 상대적으로 영향을 적게 받는다.

### 대응방향

우리나라의 곡물 자급 수준국제곡물가격의 급등에 대해서는 국내 자급률 제고와 수입곡물의 안정적 확보라는 양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주요곡물 수입량은 2000년 이후 대체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금액은 2001년 이후 상승 추세이며 2004년에는 대두와 밀의 수급 불안 등으로 물량 감소와 가격 인상이 이루어졌다.

국내 곡물의 안정적 확보 곡물 자급률 제고와 소득보전직불제를 활용하고 식량안보를 위한 공공비축제를 확대하는 한편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사료구매에 대한 비용의 일부를 직접 보조 필요, 새만금개발지역의 농업적 활용 등을 들 수 있다.

곡물의 안정적 수입과 해외농업개발 국제곡물에 대한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국제곡물유통산업의 전략적 육성과 거래를 다양화하며 해외농업개발을 추진, 유사시에도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제적 공동노력 국제 곡물가격 상승은 주로 외부적 요인들에 의해 발생, 심화되고 있다. UN 등 국제기구 차원에서 세계적 곡물 생산 증대, 바이오연료용 곡물 사용에 대한 조정, 수입의존도가 높은 후진국과 개도국에 대한 식량원조, 곡물 수출규제나 비축 정책에 대한 국제적인 조정 노력과 전 세계적으로 '2차 녹색혁명'을 위해 종자개발, 저개발국 관개시설 확충 등 획기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하겠다. 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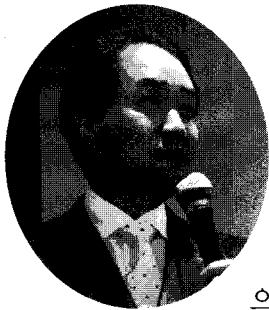
Part III

에그플레이션 시대, 작물보호제의 위상과 역할

# 농업환경 변화로 작물보호제 위상 · 중요성 커질 것

■ 김장역/ 경북대 응용생명과학부 교수

농촌노동력 고령화 · 여성화로 병해충 및 잡초 적기방제 중요성 대두  
잔류허용기준 이하면 안전농산물, 전문가 과학적 분석 · 경험 존중돼야



**에**그플레이션(agflation)은 농업(agriculture)과 인플레이션(inflation)의 합성어로 농산물 가격의 현저한 상승으로 인해 일반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을 뜻하는 신조어이다. 에그플레이션은 앵겔계수가 비교적 높은 후진국이나 곡물 수요가 최근에 급증하고 있는 신흥 개발도상국, 선진국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에그플레이션은 여러 가지 원인들에 의하여 발생될 수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국가 간 농산물의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농산물의 공급량 감소는 지구 온난화를 포함하는 기상 악화로 농산물의 작황 부진에 따른 생산량 감소, 바이오연료 등 대체 연료 활성화를 위한 곡물 사용량 증가로 곡물수요 증가, 도시화 및 산업화에 따

른 농산물 경작지 감소에 따른 생산량 부족, 소득증대로 인하여 육식이 증가되면서 가축 사료 수요의 증가로 비식용 부분으로 전용되는 양의 증가, 중국과 인도 등 브릭스(BRICs) 국가들의 경제 성장으로 인한 곡물 수요 증가, 국제 유가의 불안정으로 곡물 생산·유통 비용 증가, 유동성 증가에서 비롯된 투기자본의 유입 그리고 식량자원의 안보적 차원에서의 이동성 차단 등을 들 수 있다.

에그플레이션 시대의 도래로 이제 농업은 농업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로 인해 야기된 이러한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여 농업을 성장산업으로 변모시켜야 할 것이다. 최근 들어 국제적으로 농업을 더 이상 사양산업이 아니라 성장산업으로 보는 경향들이 나타나고 있다. 농업경제학자들은 상당기간 소외되었던 국내 농산물 관련업체들에 대하여서도 재평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작물보호제 관련 회사, 종자 관련 회사, 비료 관련 회사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곡물자급률을 살펴보면 2006년에 28%로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다행스럽게도 쌀의 경우에는 98.9%로 겨우 자급자족을 하고 있지만 쌀을 제외한 곡물자급률은 5% 수준밖에 되지 않아 OECD 국가 중 3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최근에는 국제적으로도 주요 곡물 수출국들이 수출세를 도입하거나 수출량을 제한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어서 식량자원의 확보는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

### 높아지는 작물보호제 위상과 역할

농산물의 자급률 향상을 위하여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국가적인 차원으로 보면 대량생산을 위한 경지면적의 확보를 통하여 우수한 품종을 개발하여야 하고 또한 생산성을 높여 주기 위해서 환경조절 및 병해충 방제를 적절히 해주어야 할 것이다. 농작물의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작물보호제는 농촌노동력의 부족 및 농업의 기계화 그리고 시설재배의 확대 등으로 앞으로도 더욱 중요시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렇게 농촌노동력이 고령화 및 여성화됨에 따라 집단 농업이 가능한 중대규모 농경지의 관리가 어려워지고 노동 및 기술 집약적인 시설재배를 위한 병충해 및 잡초 방제의 개념이 더욱 중요한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병해충 방제를 적기에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작물보호제의 필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세계 농약시장은 1970년대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는 꾸준한 성장세를 나타내다가 1990년대 후반부터는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농약의 사용량은 조금씩 감소되었고 지난 10년간 실

질성장은 평균적으로 -1.6%를 나타내었다.

향후 농약시장은 2007년 농업상황으로 볼 때 당분간 농약의 매출량은 미진하나마 늘어갈 것으로 예측된다. 애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비교적 곡물가격이 높게 형성되면 농가경제의 개선과 신용도 향상으로 농약의 구매가 신장되는 효과를 나타낼 것이며 결국 이러한 결과는 경지면적의 증가로 이어져 농약의 이용은 더욱 늘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바이오 연료의 생산을 위하여 관련 작물의 재배면적이 증가하고 있는 것도 작물보호제의 사용량이 더욱 증가될 것을 암시하고 있다. 그만큼 애그플레이션으로 인한 농산물의 가격상승은 농업소득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농약시장의 매출량은 다소 증가될 것이다.

### 안전농산물 원하는 소비자

현대를 살아가는 소비자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안전성이 확보된 농식품을 구입하는 것이다. 농식품의 안전성 분야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그 분야 전문가들의 과학적 분석과 경험에 의한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어떤 물질에 대한 정보가 많이 있는 사람들은 그 물질로 인한 불안감은 없다고 할 수 있으나 정보가 적거나 없는 사람은 불안감이 더욱 높아질 수 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잔류농약을 보는 눈이 그러하다고 생각된다. 사람들의 생명활동에 필수적인 식량자원의 생산에 필수불가결한 농업용 자재 중의 하나가 작물보호제이다. 작물보호제가 작물보호를 하기 위해서는 병해충 및 잡초를 방제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독성과 잔류성을 가져야 하기 때문

에 이들의 안전성에 대하여 정확히 알 필요가 있다. 농약이 살포된 어떠한 농산물도 잔류농약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 그러나 잔류농약 전문가들이 제공하는 과학적인 분석결과나 평가에 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는다면 소비자는 잔류농약의 불안으로부터 해방될 것이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작물보호제는 품목 등록을 위해서 안전성 평가를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알려진 과학적인 수준에서는 사용량과 사용 시기만 잘 지켜 준다면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소비자들이 원하는 안전한 농식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정부는 안전성 검사를 더욱 강화하고 있고 안전성 검사를 위한 분석기술도 점점 고도화 시키고 있다.

따라서 작물보호제가 살포된 농작물에는 작물보호제의 물리화학적 성질과 작물의 재배 및 환경조건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작물보호제가 잔류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 경우도 수돗물과 같이 잔류허용치 이하로만 존재하면 안전한 농산물이라 생각하여도 된다. 작물보호제의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작물보호제별로, 작물별로 안전사용기준이 설정되어 있어서 이 기준만 준수한다면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 미래의 작물보호제

세계의 인구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 인류의 식량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작물의 생산성을 당연히 높여야 한다. 때문에 작물보호제의 역할을 여전히 기대할 수밖에 없다. 미래 시대의 작물보호제는 안전성이 최우선이고

다음이 환경과의 조화라고 할 수 있다. 새로운 화합물을 만드는 일에 많은 연구자들이 꾸준히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제 새로운 약제가 나오는 속도가 과거보다는 훨씬 느리고 종류도 많이 줄어들고 있다. 그러면 과연 앞으로는 어떤 약제들이 개발되어야 하며 작물보호제의 관리는 또한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과거처럼 약효위주의 관리가 아닌 환경 친화적이며 인축에 대한 독성이 비교적 낮고 그리고 살포 후에도 잔류성에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고 단위면적당 살포약량이 적으면서 활성이 높은 약제가 개발되어 사용되어야 할 것이며, 생물농약 즉 생화학농약의 개발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미생물 및 식물 유래의 활성물질들을 이용하는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질 것이며 최종적으로 상품화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농업이 살아야 농업관련 모든 산업과 생산자 및 소비자들도 살 수 있다. 우리 농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하여 정부는 물론이고 모든 농업관련 종사자 및 농산물 소비자 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아 애그플레이션으로 어려워져 가고 있는 국제 정세를 잘 헤쳐 나가야 할 것이다.

주요 식량 수출국인 러시아, 우크라이나, 중국 등이 곡물 수출에 대하여 수출세를 부과하고 수출한도를 설정하는 등 자국 내 곡물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식량자원주의가 확산되기 때문에 국제 시장에서의 곡물가격은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우리나라는 식량안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농업생산성을 높이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경쟁 우위에 있는 쌀의 자급 기반을 더욱 다져 주는 정책이 필요하다. Y



# ‘굶주림 · 사회적 불안’ 불식위해 더 많은 식량생산 필요

■ Martin Gibson / CropLife Asia, Stewardship Manager

CropLife International, ‘먹거리 보호’ 등 사용가능한 7가지 메시지 개발

CropLife의 임무는 지역전체의 식물과학 산업을 대표하고, 합리적 규제시스템을 개발 장려하며 농업시스템 내에서 제품의 안전 · 책임 있는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이 산업은 많은 아프리카와 아시아 국가에서의 인구증가, 도시인구 유입, 농촌 빈곤, 영양 결핍 인구의 증가, 물의 이용가능성, 식량의 수요(양과 질) 및 현대 농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 지속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다.

UN의 식량 요구 프로젝트는 2050년에 두 배가 될 것이다. 이 시나리오 관리에 도움을 주기 위해 기존 토지의 생산성 증가, 연구와 개발에서 더 많은 공공 부문의 파트너십 참여, 광범위한 생명과학 수용, 기술이전 및 작은 농장 소유주에게 추가 지원 등을 포함, 식물과학 산업에 선택권이 개방되었다. 만약 굶주림과 사회적 불안으로부터 자유롭기를 원한다면 더 많은 식량을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생산해야 한다.

일부 지역에서는 필수적으로 연구와 개발을 증진하고 지속해야 하며 산업은 “완벽한 제품”을 위해 노력하며 2세대 생명공학 작물 작업에 계속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공공 부문과의 작업에서 중요한 성공 요인은 분명하다. 농업 투

자자 커뮤니티와 제휴하고 현재 수준의 대화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GAP와 스투어드쉽을 실행함으로써 농업인, 공급망, 농촌 커뮤니티, 소비자, 환경과 산업 모두가 이익을 얻게 된다. 미래 전략과 프로젝트는 공공 부문과의 제휴, 빈 용기 폐기, 제품의 올바른 저장, 병해충종합관리 개발 및 정보 전달 개선에 집중되어야 한다.

CropLife International은 식물과학 산업이 사회에 기여하고 이익을 주도록 투자자 사이의 인지도를 증진시키기 위해 △병해충 및 잡초로부터 먹거리 보호 △혁신기술이 각 헥타르 당 생산량 증가 △모두를 위해 다양하고 저렴한 건강한 식품확보를 위해 노력 △증가하는 식품, 사료, 섬유 및 연료에 대한 수요를 맞추도록 노력 △과학기술은 토양과 수자원 보존에 기여 △생산성 향상은 자연 서식지 보호 △개발도상국의 삶의 질개선 등 사용가능한 7가지 핵심 메시지를 개발했다. Y



Part V

EU, 미국, 일본에서의 Generic 제품 등록

# 높은 규제장벽 · 신뢰자료 요구 '시장 · 등록' 지식 필요

■ Wais Andreas/ RCC 농약사업부 이사

다양한 접근방법 시행, 정교 시스템 · 자유로운 접근방식 차이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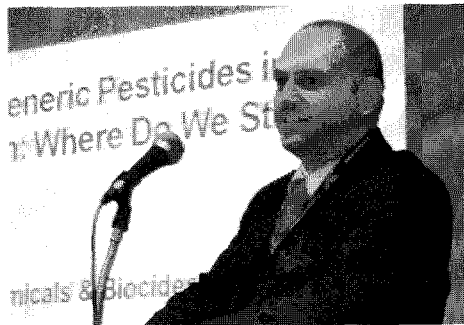
**특**히 기간이 종료된 제네릭(Generic) 제품의 등록은 EU, 미국 그리고 일본의 주요 농약 시장에서 점점 더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이 세 나라의 시장은 Generic 제품의 등록에 대해 높은 규제의 장벽을 가지고 있으며 신뢰할 만한 실험 자료들을 요구한다. 그리고 다양한 접근 방법을 시행하고 있다. 일본의 정교한 시스템과 미국의 자유로운 접근 방식은 차이가 있다.

등록을 위한 전략은 기존의 Generic 제품의 성분이나 새로이 제조된 제품의 상업적 성공을 위해 가장 심사숙고해야 할 중요한 단계 중 하나이다.

일반적으로 기업이 자신의 기업 이름으로 소유한 정보나 등록의 수가 많을수록 수익이 많다고 알고 있을 것이다. 이것은 특히 일본과 같은 높은 규제의 벽이 있는 곳의 경우 더욱 그러하며, EU에서 또한 마찬가지이다.

주요한 세 곳의 시장은 시장에 대한 지식과 정확한 전략 그리고 등록 절차에 대한 지



식이 필요하다. 새로운 아이디어는 시장 가치를 높이는데 도움을 주겠지만 단지 대안일 것이다.

일반적인 한 가지 사실은 Generic 제품을 빨리 등록한 자는 그렇지 못한 등록자에 비해 더 많은 이득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진행 절차에 대한 지식은 매우 중요하다. 이것은 어떠한 사업적 결정을 내리는데 있어 기본이 되어야 할 것이다.

모든 경우에 있어 경험을 통한 노하우가 필요하며, Harlan/RCC/SPL은 이러한 노하우를 통해 전략과 연구를 제공하며 EU와 미국, 일본을 포함한 세계 시장에서의 성공을 위한 파트너가 될 수 있다. Y